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설립 후 첫 경영평가 ‘다 등급 선방

조상원 기자 71-sangwon@hanmail.net

입력 : 2023-08-21 14:51:53 수정 : 2023-08-21 14:51:48 지면 : 2023-08-21 (15면)

기자의 다른기사 보

안정적인 사업운영 성과

【평창】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설립 후 행정안전부 첫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279개(공사 70곳, 공단 87곳, 상수도 122곳)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와 경영성과 2개 분야에서 20여개의 세부 지표를 통해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에 따라 가, 나, 다, 라, 마 등급으로 나뉜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2021년 4월 출범이후 ‘계방산오토캠핑장, 평창자연휴양림, 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 등 10개의 대행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적극적인 고객유치와 안전한 시설관리를 바탕으로 관광시설에서도 경영수지 80%이상을 상회하며 총 경영수 60%에 육박하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토대로 첫 경영평가 등급에서 이례적으로 ‘다’등급으로 선정됐다.

박현창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출범할 당시 마을위탁 등으로 노후돼 있던 수탁사업을 공단 출범 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고객 맞춤형 편의시설 정비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 이와 같은 성과의 밑바탕이 됐다”며 “최근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다 발전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상원 기자 71-sangwon@hanmail.net

입력 : 2023-08-21 14:51:53 수정 : 2023-08-21 14:51:48 지면 : 2023-08-21 (15면)

기자의 다른기사 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